

# 부르조아정보사회론이 제창하는 《계급협조론》의 반동성

홍 해 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적소유와 그에 의하여 산생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는 불피코 사회를 적대되는 계급으로 분열시키고 계급적대립과 사회적불평등을 가져오며 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동반하게 된다.》(《김정일선집》 제18권 증보판 69페이지)

자본주의사회에서 《계급협조론》을 류포시키는 대표적조류의 하나는 정보사회론이다.

정보사회론은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정보기술과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일어난 변화를 외곡하여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그 《영원성》을 설교하는 현대부르조아사상조류이다.

정보사회론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보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20세기 70년대 중엽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20세기 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체계화되였다.

정보사회론의 주되는 대표자들로는 미국의 다니엘 벨(1919~?), 앨빈 토플러(1928~?)를 들수 있다. .

부르조아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있는 현상을 외곡하여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로자간의 적대적인 계급관계가 달라지는것처럼 떠벌이고있다.

부르조아정보사회론이 제창하는 《계급협조론》은 《지식인우위사회》와 《자본가가 없는 자본주의》에 관한 궤변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부르조아정보사회론이 제창하는 《계급협조론》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자본가들이 지식인들에게 주인의 지위를 내놓은듯이 외곡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한다는데 있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를 모든 사회생활이 지식인들의 주도밑에 진행되는 사회, 지식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지식인우위사회》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은 정보사회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커지게 되므로 그들의 사회계급적처지에서도 자연히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고 떠벌이고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보사회는 지식인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전문지식인들만이 사회 특히 경제를 관리운영할수 있다. 력사적으로 보면 지식을 가진자는 권력을 장악한적이 없었으나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근로자》들이 지배적집단으로 새롭게 등장한다. 정보사회는 사회의 정치적권력이 자본가들로부터 지식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권력이동》사회이다.

그들은 정보사회가 지식인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되는 사회》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정보산업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수단, 생산요소는 지식이다. 자본주의이후의 사회에서 《지식근로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근로자들과는 달리 생산수단과 생산도구의 주인으로 될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정보산업사회에서는 정보를 장악한자들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며 지적소유권자가 자본소유권자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본가와 지식인사이에 《평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보산업시대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계급의 주인의 지위가 지식인들에게 《이동》하여 《평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부르조아정보사회론자들의 주장은 자본주의사회를 지식인들이 《주인》으로 되는 사회인것처럼 외곡함으로써 그들의 계급

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자본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는 반동적인 꾀변이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보기술, 정보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부를 창조하는데서 지식인들이 노는 역할이 커지는 것과 상반되게 지식인들이 의연히 자본의 노예로 전락되어 착취와 억압을 받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 지식인들이 이러한 사회계급적처지에서 벗어나자면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지식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는 한 정보기술, 정보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경제발전에서 그들이 노는 역할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회계급적처지에서는 그 어떤 변혁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기계제산업시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사회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정보산업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정보산업시대 자본주의사회의 지식인들의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처지에서는 그 어떤 변혁도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지식인들의 과학기술 및 정보활동능력으로는 언제 가도 자본주의사회를 혁명적으로 청산할 수 없으며 독점자본가들이 방대한 자본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 자본의 착취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생활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의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착취사회에서 사회적부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지만 그들이 그 주인으로 되지 못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극소수 착취계급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지배와 예속, 착취와 약탈은 자본가들의 변할 수 없는 본성이다.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지배하고 예속시키며 그들의 창조물을 착취하고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자본가들의 고유한 생리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대독점자본가들을 비롯한 자본가계급은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지식인대렬이 늘어나고 사회경제발전에서 지식인들이 노는 역할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여도 저들의 특권적인 지배적지위를 스스로 지식인들에게 양보하거나 버리려 하지 않는다.

력사적경험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이 사회적으로 압도적다수를 이루며 자연개조능력이 높고 자연을 개조하는데서 그들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제도를 때려부실 수 있는 혁명적능력을 가진 정치적력량으로 준비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본의 노예로서의 피압박처지를 절대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르조아정보사회론이 제창하는 《계급협조론》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정보산업시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가가 완전히 없어지는 듯이 외곡함으로써 계급적대립을 부정하고 있는데 있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에서는 자본가가 하나의 계급으로서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들은 《자본가가 없는 자본주의》에 관한 꾀변을 늘어놓고 있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의 도래로 자본가라는 개념이 그 의미를 상실해가면서 자본가들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정보사회구조의 확립으로 자본주의사회의 지배계급으로서의 자본가계급은 소멸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자본가계급은 지배계급, 착취계급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권력의 전문가》, 《통합자》, 《봉사자》이며 경제적

으로는 《최고경영자》, 《전문경영자》, 《관리인》, 《투자가》로 된다는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오늘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는 주식소유의 《국민화》, 《공공화》로 소유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 자본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적소유가 없어지게 된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유주와 경영주가 분리되고 자본가와 노동자는 《관리인》, 《대리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부터 그들은 정보사회의 자본주의가 《자본가에 의한 자본주의》에서 《관리자에 의한 자본주의》에로 이행하게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자본주의가 정보산업시대에 들어섬에 따라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종래의 자본가는 없어지고 그들이 근로자들과 평등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관리인》으로 변화된다는 주장은 본질에 있어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대립을 은폐하고 근로대중의 자주의식을 무마시켜보려는데 있다.

사적소유와 그에 의하여 산생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는 불피코 사회를 적대되는 계급으로 분열시키고 계급적대립과 사회적불평등을 가져오며 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동반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보기술, 정보산업의 발전과 함께 자본의 착취수법과 통치방법에서 이러저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있지만 금권의 힘으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인민대중을 착취하며 억압하는 자본가계급은 《소멸》되지 않았다.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극소수의 대독점 자본가들은 국가정권과 발전된 정보설비들을 비롯한 생산수단은 물론 정보기술을 비롯한 최첨단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독점하고 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지배하면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저들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하고있다.

오늘 정보사회론자들이 정보산업시대 자본주의의 기술경제적조건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자본가계급내부구성에서의 변화를 구실로 자본가계급《소멸》론을 들고나오는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적아를 옳게 구별할수 없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본가계급과 그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혁명적으로 떨쳐나서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다.

정보사회론자들이 정보산업시대 자본주의를 아무리 미화분식하여도 자본주의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울수 없다.

우리는 정보사회론자들이 떠벌이는 《계급협조론》의 반동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